

2005년 9월에 바라본 젊은 국악의 고민과 과제 -제2회 창작국악경연대회-

심준희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반세기를 훨씬 넘긴 오늘의 창작국악은 ‘현대화’라는 대명제 아래 교육, 방송, 공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과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전통음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창작국악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 국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전통음악이 전통으로만 머물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국악계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박제되지 않고 동시대인들과 함께 향유되며 생동하기 위해서 ‘현대화’라는 대명제 아래 국악은 교육, 방송, 각종 공연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과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새로운 레퍼토리(repertory)의 개발, 바로 ‘창작국악’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창작국악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서구식 작곡의 개념이 한국의 음악계에도 입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국악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새로운 문화향수층은 더 이상 국악이 전통적 가치에만 의지하며 머무를 수 없게 했다. 빠르게 변화해 온 우리 현대사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한 음악 내적인 고민과 음악인들의 삶과 사회의 권력이 뒤엉킨 음악 외적인 문제들은 창작국악이라는 이름아래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생산해 왔다. 창작국악은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며 젊은 국악인들의 주도적인 활동에 기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회에서 만난 오늘의 젊은 국악

이제 반세기를 훨씬 넘긴 오늘의 창작국악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2005 국악축전 ‘중흥무진 우리음악’>의 네 번째 장(場), ‘젊음과 참여’라는 국악축전의 모티브(motive)가 가장 뜨겁게 펼쳐진 그 곳, 제2회 창작국악경연대회의 현장에서 오늘의 젊은 국악을 만나왔다. 국악관 열린음악회를 표방하며 철저히 대중을 위한 국악축제를 지향한 <2005 국악축전>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아무리 훌륭한 공연이어도 그들만의 잔치인 듯한 여운 때문에 아쉬워해야 하는 많은 국악공연과는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날의 공연을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 박수갈



2005 국악축전 포스터



2005 국악축전 대상팀 '예인'

채를 보낸 객석의 사람들도 대부분이 새로운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악의 '현대화' 라는 명제는 언제부터 '대중화' 라는 명제로 탈바꿈해 버린 것일까? 행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대중의 한 사람으로 공연을 즐겨보자' 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악은 국악다운 맛이 있어야지…… 국악이 클래식(classic)이 나, 재즈(jazz)나, 힙합(hip-hop)이나, 록(rock)다워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소리꾼 김용우의 <장타령>으로 무대는 열렸다. 산만 했던 객석의 분위기를 흡입력 있게 무대위로 끌어올린 그의 소리는 한국적 시김새와 그 만의 감칠맛이 있다. 김용우와 아나운서 최은경의 사회로 진행된 본선 경연에는 9팀의 기악곡과 3팀의 성악곡, 모두 12곡의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었다.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악기도 사람의 목소리만큼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만큼 노래가 갖는 힘은 크다. 1970~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리었던 국악가요, 민중가요는 비록 주류 국악계에 영입되지는 못했지만, 현대 한국음악사에서 자생력을 갖지 못했던 대부분의 창작 국악곡들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로 재조명 되고 있다.

또한, 국악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한민족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 역시 노래이다. 그런 우리의 노래를 꿈꾸며 참가했을 세 팀의 노래는 발라드(ballad) 내지는 부드러운 재즈풍, 그리고 힙합이었다. 가야금, 해금, 장구, 기타, 코러스, 건반 편성의 반주에 여성 보컬(vocal)의 목소리로 불린 <미련>은 참가자 꺼이 스스로 밝혔듯 드라마 삽입곡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이었다. 발라드 풍의 노래를 5음음계에 담아내고자 한 哉人の 노래 <花歌>는 전통음악의 12가사 가운데 하나인 <매화가>의 선율을 대금 선율에 도입하였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 Sorea는 국악기 반주에 힙합 듀오(duo)와 여성 보컬이 <Beautiful Korea!>를 불렀다. 세 팀 모두 국악기로 반주하고 있었지만, 노래 안에서 국악적인 시김새를 맛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Sorea의 여성 보컬이 판소리적 색채로 노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었 보였고 가사의 내용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 '작지만 강한 나라, 아름답고 순수한 나라' 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국악적 코드로 재탄생 된 연주곡들

경연의 대부분을 차지한 기악곡들은 대체로 클래식, 재즈, 라틴음악 등 다른 장르 음악과의 접목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음악 내외적인 모습에서 대중음악의 형태와 흡사하게 연출해 보고자 한 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ATMAN의 참가곡이었던 작곡가 김대성의 <사랑꽃>은 서양음악적 선법과 우리 음악적 표현을 염두에 둔 3박자의 틀로 '사랑' 이라는 주제를 표현했는데, 국악기와 양악기를 적절히 구성한 세미클래식(semi-classic)풍의 서정적인 곡이었다. 한편, 피아노와 첼로, 플루트로 연주된 Ensemble MOR(Middle of the Road)의 <학무>는 국악기의 연주기법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국악적 코드로 활용했다.

‘한국적인’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젊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매개로 삼아 유례 없이 급진적인 성향의 <창작국악경연대회>가 기획되었다는 것은 국악의 대중화라는 이 시대 젊은 국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인 대열의 국악원로들부터 현재 퓨전국악을 선도하고 있는 주류 국악인들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가장 빈번히 교류하였던 장르는 재즈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재즈와 국악을 접목한 팀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홍혜선 앙상블은 가장 재즈의 느낌이 강했다. 색스폰과 보이스(voice)를 주축으로 하여 기타, 혼, 피아노, 리듬섹션으로 구성된 이 팀은 민요 뱃노래와 굿거리 장단이라는 모티브를 재즈로 풀어낸 <Boat Song>을 연주했다. J.O.K는 <The Mind>를 통해 국악과 재즈를 접목시켰는데, 사물놀이의 별달거리가 재즈풍의 선율 중간에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어울림’을 주제로 한 <GALAXY>로 참가한 UNLOOP 역시 퓨전재즈밴드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는데, 저음부로 아쟁이 편성된 것이 독특했지만, 타악기 소리에 현악기들의 음색이 묻혀 버린 것이 아쉬웠다.

음악적 내용 뿐 아니라, 연주자들의 의상, 몸짓 등 무대 연출을 대중 음악적 키워드(keyword)로 접근한 팀은 Sia와 이날 대상을 수상한 藝in이었다. Sia는 <Bird can fly>를 연주했는데, 이 곡은 민요 <새야 새야>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우리 민족의 ‘한’ (恨)이라는 정서를 재해석 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절함이 더해져 절절한 깊은 슬픔이 요란하지 않게 표현되어 온 전통음악에서의 ‘한’ 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시원스런 의상과 현란한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무대에 등장한 여성 10인조 그룹은 藝in으로 <울림>을 연주했다. 다른 팀들과 달리 국악기가 주축이 된 藝in의 무대는 시조 <북천이 맑다컸을>을 모티브화 하면서 국악기 편성의 록그룹을 연상케 했는데, 전통 장단을 탭댄스의 리듬으로 풀어낸 표현이 독창적이었다.

그 외, 실내악단 休와 Interpay는 각각 전형적인 국악실내악단과 라틴음악을 지향했다. 休는 기악과 구음이 어우러진 <운무(雲撫)>를 연주했는데, 악기 편성이

나 곡의 느낌 등에서 슬기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국악 실내악단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Interpaly의 <Hola! Arirang>은 강원도 아리랑을 차차(cha-cha)와 살사(salsa) 같은 라틴 리듬과 접목하여 구성했다.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취향의 고민

국악축전에서 주최하는 <창작국악경연대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무수한 국악경연대회와는 확실하게 차별되는 행사이다. 나이와 학력은 물론이고 참가자의 전공이나 참가곡의 장르에도 아무런 규제와 단함이 없다. 다만,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이 살아있으며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악과 다양한 장르가 만나는 작품도 가능’ ‘국악기의 사용을 권장하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 색채가 반영된’이라는 명제가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창작국악’ 이기보다는 ‘퓨전국악’을 지향한다.

‘한국적인’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젊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매개로 삼아 유례 없이 급진적인 성향의 <창작국악경연대회>가 기획되었다는 것은 국악의 대중화라는 이 시대 젊은 국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반증한다. 그들은 전통음악을 지탱해 온 귀중한 가치와 영예로운 명분의 절박함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중화라는 명분만으로(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가 지향하듯) 21세기 세계음악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지렛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적어도 퓨전(fusion)이라는 이름 아래 적당히 국악기 몇 개, 국악적 선율 한 자락 믹스(mix)한 음악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취향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국악의 대중화를 부르짖으면서 대중은 있는데,

국악은 어디에 있는지 뒤져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정통성의 문제와 현대화라 치칭되는 대중적 요구는 이 시대 젊은 국악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날 게스트의 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참가자들의 순서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가수 박화요비의 무대를 보며 다시금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 국악은 어디에 있는 거지?' 국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녀의 히트곡을 두 곡이나 부르기도 바쁜 스케줄에 쫓기듯 총총 걸음으로 무대를 내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국악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관심도 없어 보였다.

두 번째 곡에서는 피리와 해금을 매치(match) 시켰지만, 그것은 국악도, 창작국악도, 퓨전국악도 아니다. 그녀 이외에도 <2005 국악축전>의 공식음악에 참여한 가수 김현철과 하모니카 재즈뮤지션 전제덕, 작년 대회 금상 수상자였던 오감도를 게스트로 만날 수 있었다. 좋아하는 대중음악인을 만나는 것도, 일년만에 훨씬 당당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예년의 수상자를 만나는 것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 매우 즐거운 볼거리였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국악과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몇 곡씩이나 듣는 것보다 잘~된 창작국악곡 하나 들어보는 것은 어떨을까? 이 날의 무대와 어울리지 않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나오는 생똥맞음을 비켜가면서도 구성된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들었어도 좋았을 듯싶다. 당의정(糖衣錠)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날 무대는 신나는 잔치의 장인 동시에 경쟁의장이었음을 빗겨갈 수 없다. 국악과 대중음악, 월드뮤직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들은 이 날의 가장 큰 영광을 Kinetic 국악그룹 藝in에게 안겨 주었다. 작품의 완성도와 경중(輕重)을 놓고 심사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날 결과에 대해 나름대

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들 나름의 고민의 흔적이 비교적 돋보였다. 우선, 1980년대 이후 창작국악계를 선도해 온 실내악단 슬기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국악기 하나 없이, 한국적 시김새에 대한 별다른 고민의 흔적 없이, 다른 음악장르에 편승하여 혹은 국악기 이외의 악기 편성만으로 새로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주요 국악기를 고르게 활용한 악기편성을 통해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에서부터 새로운 틀을 모색한 노력의 흔적이 의미 있어 보였다.

특히, 참가팀 가운데 유일하게 거문고를 연주한 모습이 반가웠다. 거문고는 국악의 현대화 작업과 맞물려 진행된 악기 개량 작업에서도 가장 고집스런 한국의 악기로 평가되었던 악기다. 그래서 퓨전국악 무대에서는 대부분 만나기 어려웠던 거문고였다. 이들이 찾은 새로움의 출구는 국악과 다른 형태의 음악이 아닌 무용이나 연극, 미술과 같은 인접 분야의 요소였다. 이러한 멀티(multi)적인 공연양식에서 국악이라는 소리예술은 다른 소리예술로부터 침해받을 가능성을 적게 갖는다. 클래식, 재즈, 힙합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과의 조우를 도모한 다른 팀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학력과 나이로 신인과 기성의 잣대를 구분지음이 진부한 발상이라는 면은 있지만, 팀의 구성원이 모두 기성 음악인이 아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는 점 또한 눈에 띈다. 그래서 藝in의 무대는 잘 생긴 모양에 좋은 빛깔과 진한 맛으로 익지는 않았지만, 풋풋하고 싱그러웠다. 신인은 신인다운 맛으로,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져도 솔직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설 때 더욱 진실해 보인다. 적어도 음악 이외의 무대 위 몸짓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는 그렇다. 또한, 이들이 창작경연대회만을 목적으로 결성된 일회적인 팀이 아니라는 점이 이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藝in은 이번 대회와 관계없이 그들만의 단독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다.

‘우리음악의 힘 다지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두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창작국악사에서 명곡으로 꼽히는 많지 않은 작품들이 결코 불빛 밝은 길만을 쫓으며 나온 것이 아님을, 대중의 박수갈채에만 의지하여 탄생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겠다.

대중을 위한 행사를 지향하는 <국악축전>

국악행사로는 드물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기획된 <국악축전>은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행사를 지향한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이 국무총리복권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서 출자된 막대한 자본이 일반 대중을 위한 축전의 장을 통해 환원되는 형식인 것이다. 이 국악 행사는 다행스럽게도 2004년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올해는 보다 많은 지원 아래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가치는 인정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골동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예술이기에 더욱더 문화계 한쪽 구석에, 향수자의 애정보다는 전통적 가치의 귀중함에 기댄 명분을 달고 서있던 전통음악, 즉 ‘국악’이라는 소재가 중심이 되어 전국을 종횡무진 누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반갑고 즐거운 일이다. 그 성과가 좋아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그 규모나 지원이 커진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알차게 탄실해져야 한다.

예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매우 많은 대중음악가들이 <국악축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친근한 대중음악인들에게 ‘국악’이 새로운 음악적 영감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그 영감이 알팍한 감성에 그치지 않고 국악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대중음악인들의 음악적 감성은 국악인들이 미처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창작국악의 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작국악경연대회의 경우 조금은 더 견고한 국악 중심의 잣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본선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은 아마도 많이 고민하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력을 보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이 중심에 있는 음악이기보다는 (그것이 재즈이건, 클래식이건, 힙합이건 간에) 국악이 언저리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떨칠 수 없는 곡들이 많았다. 대중성을 지향한 경연대회이더라도 창작국악경연대회가 아니던가!

너무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모인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전통음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에서 출발하지 못한 참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갓 두 돌을 맞은 이 행사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행사가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다듬어지는 모습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전통음악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에 바탕한 실험정신으로 견고화 되고 보배로운 창작국악곡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음악의 힘 다지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두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다. <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는 젊은 국악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길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창작국악사에서 명곡으로 꼽히는 많지 않은 작품들이 결코 불빛 밝은 길만을 쫓으며 나온 것이 아님을, 대중의 박수갈채에만 의지하여 탄생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겠다. 국악기 속에 숨겨진 다른 색깔의 소리를 찾아 고민하고, 세상 저 구석에 숨어있던 명인의 손끝, 소리끝을 찾아, 때로는 흠먼지 폴폴거리는 후미진 시골길을 부지런히 발품한 뒤에야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꿈을 품는다. 하지만, 그 수많은 가능성으로 인해 바로 그 젊음은 고뇌할 수밖에 없다. 젊은 국악도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열고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 아름다운 우리음악이 종횡무진 누빌 것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오고 있다. 그 한발 한발이 치열한 고뇌의 결과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상업성에 기댄 달콤함에 영합하지 않는 가치로운 고뇌에서 비롯되기를 희망한다. 🍀